

언어교제를 위한 사상감정의 축적과 그에 따르는 어휘선택

정 대 순

언어는 인간교제의 가장 중요한 수단이다.

사상감정의 축적과 그에 따르는 어휘선택은 표현과 리해로 이루어지는 언어교제과정에서 그 첫 단계를 이룬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사람은 자기 주위에서 벌어지는 생활, 자신이 체험하는 생활로부터 출발하여 일정한 사상감정을 축적한 다음에야 말하게 된다.》(《김정일전집》 제20권 133페이지)

언어교제는 교제에 참가한 사람들의 사상감정의 축적으로부터 시작된다.

사람들의 사상감정은 일정한 원인에 의하여 생겨나며 그것이 확고한것으로 될 때 비로소 말로 옮겨진다. 다만 정상적으로 사고하고 행동하는 사람들은 이러한 론리에 맞게 말하는데 익숙되어있기때문에 말할 때에 언어행위의 론리적과정에 대하여 특별히 주의를 돌리지 않을뿐이다.

언어교제를 위한 사상감정의 축적에서 나타나는 일반적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로, 사상감정의 축적은 교제당사자들사이에 심리적방향의 일치를 지향하면서 이루어진다.

언어교제에 참가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자기 말이 사실에도 맞고 리치상으로도 어긋나지 않으며 도덕관념에도 부합되는것임을 납득시키기 위하여 머리를 쓴다.

그것은 교제에 참가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사상감정의 축적은 어디까지나 자기 주위에서 벌어지는 생활, 자기가 체험하는 다양한 생활로부터 출발하기때문이다.

둘째로, 사상감정의 축적은 내적인 언어행위형식으로 이루어진다.

사상감정의 축적은 언어교제가 아직 외적인 언어형식으로 드러나기 이전단계로서 이것은 내적인 언어행위형식으로 진행된다. 여기서는 음성적표현이 없이 이야기내용의 구상이 진행되며 이것은 외적언어행위에서와 같이 전개된 형식으로 진행되지도 않고 표현적인 문장읽기도 없다.

이러한 사상감정의 축적, 내적언어행위는 두가지 기능을 수행한다.

우선 상대방에 대한 자기의 요구를 자각하는 기능이다.

이것은 목적지향적이며 계획적인 행동과 많이 련결되어있다.

또한 대상과의 관계에 따라 이야기내용을 신속정확히 설정하는 기능이다.

이것은 이야기내용을 도식화하는 기능으로서 추상적사고와 련결되어 주로 분석종합의 기능을 수행한다.

셋째로, 사상감정의 축적은 짧은 시간안에 《자동적》으로 이루어진다.

사상감정의 축적은 보통 외적인 언어행위의 시간보다 짧은 시간동안에 이루어진다.

례를 들어 사람들사이에 주고받는 일상적인 짧은 대화에서는 이야기내용과 관련한 의식적인 자각과 노력이 거의 없는것처럼 보이지만 이런 경우에조차 머리속에서는 이야기내용의 구상이 진행되는것이다. 다만 부단한 생활속에서 경험이 이루어지고 숙련되어 이야기내용의 설정이 거의 《자동화》되어있을뿐이다.

만일 내적언어행위가 전개된 형식을 띠고 진행된다면 사고과정을 지연시킬수도 있다. 사상감정의 축적에 영향을 주는 기본적인 심리언어학적요인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로, 상대방에 대한 파악이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교제의 시작전에 다음과 같은것에 주의를 돌린다.

- 상대방이 교제를 통하여 바라는것이 무엇인가.
- 상대방이 교제에서 노리는 기본초점은 무엇인가.
- 사물현상, 대상에 대한 평가와 립장, 태도는 어떠한가.
- 자기자신과의 견해상공통점은 무엇이고 차이는 어떤것인가.
- 상대방이 자기자신에 대하여 가지는 기대와 태도는 어떤것인가.

둘째로, 교제목적의 설정이다.

교제목적은 사람에 따라 각이하지만 공통적으로는 다음과 같은것이 있다.

- 서로의 합의점으로 지향하는것이다.
- 서로의 정보를 교환하고 전달하는것이다.
- 서로의 지식을 확대하고 수정보충하는것이다.

셋째로, 화제거리의 선택이다.

교제과정에 오고가는 화제거리는 매우 다양하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화제거리를 고르는데서는 초점으로 되는 사회적문제, 생활상의 가까운 문제, 상대방의 취미, 이야기분위기나 환경의 적합성, 좋지 못한 분위기의 의도적인 해소 등에 주의를 돌린다.

넷째로, 이야기의 제기설정이다.

언어교제가 성공적으로 진행되자면 이야기의 계기도 바로 설정해야 한다.

교제는 상대방의 심리상태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이야기를 꺼내는 시간, 이야기를 주고받는 장소 등에 따라 화제흐름의 적중한 순간들을 능동적으로 선택해야 한다.

다섯째로, 이야기내용의 량적측면(정보량)에 대한 결정이다.

최대치의 정보량을 보장하는것은 언어교제의 량적요구이기도 하다.

교제과정에 모든 정보들은 그 가치가 꼭같지 않은것만큼 사상감정의 축적단계에서는 마땅히 이야기내용의 량적측면에도 관심을 돌려야 한다.

구태여 말하지 않아도 알수 있는 문제에 대하여 곱씹어 말하거나 길게 늘어놓는것은 모두 사상의 요점을 강조하는데 방해로 될뿐이다.

여섯째로, 대화분위기의 고려이다.

언어교제에서는 주어진 분위기도 무시할수 없다.

일반적으로 이야기를 나누는데서 좋은 분위기로는 다음과 같은것들을 들수 있다.

- 상대방이 자기 발언에 대하여 가장 적극적인 관심과 기대를 표시할 때

- 생각을 정리하고 여유있게 떠나갈수 있는 충분한 교제시간이 주어졌을 때
- 서로가 지향하는 문제에서 공통된 요구와 흥미를 느낄 때
- 상대방이 보다 새롭고 쓸모가 있으며 사업이나 생활상 긴절한 문제들을 편이여 화제거리에 올릴 때
- 말하는 사람 자신이 이미 세운 자기의 견해의 확고한 타당성에 대하여 자신심이 막 넘쳐날 때
- 상대방이 자기의 이야기내용에 적극적인 호응을 보내줄 때
- 주위가 조용하고 깨끗하다는 느낌을 받을 때

【《심리언어학》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주체106(2017).】

일곱째로, 대화공간거리의 결정이다.

친근한 사이라면 대화공간거리가 보다 가깝고 초면이거나 료해정도가 깊지 못한 사람들사이의 거리는 상대적으로 멀다. 그러므로 교제의 대상에 따라 가까운 거리, 개인적인 담화거리, 공식적인 교제거리, 사회적인 담화거리 등으로 옳게 갈라서 바로 설정해야 한다.

언어교제는 이러한 사상감정의 축적에 기초하여 해당하는 어휘의 선택으로 이어진다.

언어는 사람들의 사상감정과 심리를 표현하는 첫째가는 수단이다.

어휘의 선택으로 사람들사이의 교제, 외적인 언어표현과정이 비로소 시작된다.

어휘의 선택은 언어교제에 참가한 사람(교제자)이 머리속에 미리 축적해놓은 언어재료들 가운데서 의사교환과 심리전달에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되는 어휘(개별적단어, 성구 등)를 찾고 골라내는 언어교제과정의 하나이다.

어휘선택은 언어교제의 성공을 담보하는 매우 중요한 공정으로 된다.

그것은 첫째로, 교제자의 사상감정과 심리상태가 어휘속에 집중적으로 체현되기때문이다.

대상, 현상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의 결과 그리고 그에 대한 사람들의 판단과 평가 같은것은 그것이 단순하건 복잡하건, 저급하건 고급하건 어느것이나 다 단어와 같은 어휘표현속에 먼저 체현되고 거기에 고착된다.

더우기 단어와 같은 언어적단위는 표현과 리해라는 사상교환과 정보전달에서 항시적이고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사실상 교제에서 어휘표현의 참가없이 문법적수단이나 수법만으로 사상감정을 전달하는 경우란 있을수 없으며 간혹 의미전달에서 문법적요소나 성분의 생략, 중단 같은 현상은 있어도 핵심적인 의미부분, 그것을 담당한 단어나 어휘의 생략, 중단같은것은 생기기 힘들다. 때로는 단어만으로도 의사가 충분히 전달되는가 하면 짝막한 하나의 단어가 길고 복잡한 문장을 대신하는 경우도 있을수 있는것이다.

그것은 둘째로, 어느 한 대상, 현상을 나타내는데 가장 알맞는 표현은 언제든지 하나밖에 없기때문이다.

매개 말소리가 나타내는 소리색같이나 특히 단어가 나타내는 의미는 그 폭과 깊이, 사용의 대상과 범위에서 결코 하나같지 않다.

- 앙앙 - 엉엉 - 앵앵 - 윙윙 - 웅웅 - 잉잉 - 왕왕 - 웅웅
- 출출 - 쫓쫓 - 줄줄 - 졸졸 - 쫓쫓 - 쪽쪽 - 쪽쪽 - 족족 - 속속
- 땅 - 딱 - 푹 - 푹 - 탁 - 탕 - 툭 - 툭 - 탕 - 땡 - 땡

- 웅알거리다 - 웅얼거리다 - 중얼거리다 - 종알거리다 - 종알거리다
- 뵈다 - 발깁다 - 벌겉다 - 뻔겉다 - 시뻔겉다 - 새뻔겉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교제내용에 꼭 맞는 말소리와 그것을 통한 적중한 어휘를 찾아내는데 관심을 많이 돌린다. 수많은 비슷한 어휘표현가운데서 그 대상, 현상에 꼭 들어맞는 가장 적중한 하나의 신통한 어휘표현을 찾아내는데 교제자의 높은 인식능력이 있으며 언어표현, 언어구사의 재능이 비끼게 된다.

언어교제자가 적중한 어휘를 선택할 때만이 사랑과 증오, 존경과 애무 그리고 높임, 낮춤, 알잡음과 멸시, 비웃음, 천시, 경멸 등 서로 다른 미묘한 감정들을 정서적으로 효과있게 담아내면서 교제를 순탄하게 이어나갈수 있다.

정확하면서도 간결하고 통속적이면서도 명료한것, 이것은 대상의 본질을 명중한 가장 적중한 어휘표현의 특징이다.

그것은 셋째로, 교제에 참가하는 사람들자체가 천태만상이기때문이다.

교제에 참가하는 사람들은 그 생김새뿐아니라 나이와 성별, 취미는 물론 직업과 지식정도, 문화도덕수준도 각이하고 구체적인 사상감정과 요구, 지향도 서로 다르다.

이런데로부터 생각없이 던진 한마디의 말이 대상과 이야기분위기에 따라 각이한 이해와 반응을 일으키는가 하면 때로는 좋은 마음으로 보낸 말이 뜻밖에 상대방의 오해를 사거나 지어 두고두고 마음에 내려가지 않는 상처로까지 남아 서로의 교제와 이해를 방해하기도 하는것이다.

각이한 요구와 서로 다른 수준을 가진 광범한 교제자들이 어느때, 어디서, 누구와 교제를 해도 한모양, 한본새로 사상이 통하고 정이 오고가는 그런 이상적인 언어교제가 이루어지도록 하자면 반드시 그에 꼭 알맞는 어휘가 제때에 골라지고 빈틈없이 맞물려져야 한다.

그것은 넷째로, 언어교제에 참가한 사람들자신이 아름다운것을 도덕적감정과 하나로 융합하여 체험하는 심리를 가지고있기때문이다.

사상감정을 섬세하게 드러내면서도 시대적미감과 도덕적요구에 다같이 부합되게 표현하는것은 온갖 낡은것을 쓸어버리고 끊임없이 새것을 창조하여나가는 우리 시대 인간들이 언어생활, 언어교제에서 내세우는 요구인 동시에 그 기준이기도 하다. 언제든지 도덕적원칙과 요구에 부합되는 언어교제만이 인간을 진정으로 아름답게 만들어준다. 도덕적요구에 꼭 맞는것치고 사람들의 마음에 들지 않은것이 없으며 도덕적으로 저렬하고 루추한것이 아름다운것으로 둔갑되고 평가된 례도 없다.

소박하고 구수하면서도 의리와 불리도덕에 반드시 부합되는 고상하고 문화적인 표현들만이 사람들의 심중에 깊이 자리잡을수 있고 아름다운것에 대한 지향과 공감을 줄수 있다. 그러므로 자기가 늘 몸가까이에서 체험하고 느끼는 생각이나 감정을 소박하고 구수한 언어표현속에 담을줄 알고 또 온갖 비문화적인 언어표현을 경멸하고 증오할줄 알게 될 때 진정으로 아름답고 고상한 언어생활의 창조자, 향유자가 될수 있는것이다.

어휘를 선택하는데서 다음과 같은 점들을 놓치지 않는것이 중요하다.

언어교제에서는 우선 교제상대방에 꼭 알맞는 어휘를 정확히 골라써야 한다.

교제에 참가한 사람은 누구나 상대방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것부터 가늠하고 필요한 언어적수단을 선택하여야 하는데 여기서는 주로 상대방의 성별이나 나이, 사회적지위 그리고

자기와의 친분관계, 상대방이 지닌 사상문화지식수준 같은것이 먼저 고려된다.

성별이나 나이에 따라서 개별적인 어휘선택에서는 많은 차이가 생긴다.

상대적으로 남자들에게는 활달하고 큼직큼직하며 무뚝뚝한 표현들이 더 잘 어울리고 여성들에게는 보다 부드럽고 조용하며 사근사근하고 친절한 표현들이 잘 어울린다.

○ 《언제부터 제눈은 보석이구 남의 눈은 유리알처럼 생각하기 시작했소. 예? 우리 수령님의 천금같은 믿음을 저버리는게 다른게 아니웁다. 똑 저만 제일이라고 생각하는 그게 바로 배신으로 가는 시초지요. 도당부위원장동지, 절대로 거짓보고를 올려서는 안됩니다.》(예술영화 《민족과 운명》로동계급편)

○ 《옛말에 고산에서 맹호나구 광야에서 준마난다고 했지. 수령님과 한식솔인 우리 쇠물집에서는 언제나 나라를 받드는 충신만이 날게요. 제수, 우리 언제 어디서나 수령님과 한식솔이라는걸 잊지 말구 한생을 충신답게 살아나가자구.》(예술영화 《민족과 운명》로동계급편)

자기 집, 자기 동네를 통하여 온 세상을 내다보는 어린아이들에게는 보통 어른들사에 쓰이는 말마디외에 구체적설명을 붙인 어휘들이 더 필요하며 될수록 밝고 명랑한 느낌을 나타내는 말소리들로 이루어진 단어들을 선택하여야 한다.

사상문화지식수준에 대한 고려는 어휘수단선택에 크게 작용한다.

그것은 사람들이 지닌 사상적준비정도와 지식정도, 그들의 능력과 수준이 언어사용의 질적수준을 평가하는 중요한 척도의 하나로 되는것과 관련된다.

만약 상대방의 준비정도에 대한 고려가 없이 어휘가 선택된다면 교제에서 의사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으며 나아가서 상대방의 인격이 무시되거나 오해를 가져올수 있기때문에 특별히 신중해야 한다.

○ 한번은 주영섭이 그의 뒤를 겨우 따라잡으며 소리쳐 물었다.

《동무 혹시 황천왕동의 손자가 아니요?》

로지봉은 영문을 몰라했다.

《그게 누구데유? 황천왕?!...》

주영섭은 피식 웃으며 말을 돌렸다.

(총서 《불멸의 력사》중 장편소설 《조선의 힘》)

○ 용해공: 그럼 이집 사위도 귀환병?!

개성집: 귀환병? 그건 땅크병하구 다른건가?

(예술영화 《민족과 운명》로동계급편)

교제에서는 친분관계에 따라 형상성이 높은 비유적표현도 골라쓸수 있는데 이러한 교제는 교제과정자체가 지루하지 않고 흥미진진하게 이어지게 한다.

○ 태섭이— 잘 있었어? 왜 소식이 없었어? 이 바다곰아.

(예술영화 《청춘의 심장》)

그러나 즉흥적인 감정이나 기분 같은것을 나타내는 경우에도 《제길, 제기랄것, 젠장, 흥, ...》같은 감동사들을 웃사람앞에서 망랑 쓰지 말아야 한다. 버릇없고 문화성이 없는 이러한 표현은 상대방의 기분을 나쁘게 하는것은 물론 주변사람들에게서까지 규탄을 받는 비도덕적인 행동으로 된다.

우리 말에는 대상을 높이고 낮추는 감정심리를 섬세하게 나타낼수 있는 어휘들이 뚜렷이 구분되어있는것만큼 교제에서 누구나 다 비슷한 여러 표현가운데서 교제대상에 따르는 가장 적중한것을 잘 선택하여 알맞게 써야 한다.

언어교제에서는 또한 주어진 교제환경과 분위기를 충분히 고려하면서 어휘를 선택하여야 한다.

교제는 언제든지 일정한 환경과 분위기속에서 진행된다.

때로는 단 둘이서, 때로는 여러명이 각이한 장소와 서로 다른 정황에서 맞다들게 되는 언어교제의 특성은 같은 말도 성격과 정황에 따라 여러가지로 쓰이고 사람마다 서로 다르게 들린다는데 있다.

그러므로 교제자는 어휘를 선택하는데서 이야기를 주고받는 장소나 시간, 대화공간거리와 교제분위기 같은것에도 늘 관심을 돌려야 한다.

교제장소는 공식적일수도 있고 개인적일수도 있으며 가정적일수도 있다.

한 사람의 경우라도 그는 가정이나 사회적환경에 따라 여러가지로 불리울수 있다.

예술영화 《민족과 운명》로동계급편 제6부에 나오는 여러 인물들의 대사를 통하여 이것을 잘 알수 있다.

영화에서 맏아들과 아버지의 관계에 있는 강준과 태관은 집안에서는 서로 《강준아, 맏이야》 그리고 《아버님》으로 불리운다. 그러나 공장에서 아버지 강태관은 그 장소, 그 분위기에 맞게 《아버지》라는 부름말이 아니라 《직장장》이라는 공식적인 부름말을 쓸것을 천리마운동의 참뜻을 이해하지 못하는 맏아들인 강준에게 엄격히 요구하면서 쇠물집의 어길수 없는 가풍을 가르친다.

○ 태관: 《쇠물집이 뭐 타고난 터자린줄 아냐? 천리마운동이란 뉘집 낫내기를 위해서 하는게 아니다.》

강준 : 《아버님!》

태관 : 《여긴 직장장실이다.》

강준 : 《아버님은 너무하십니다. 강옥의 불행만으로도 성차지 않아 이 맏이의 앞길마저 막습니까?》

태관 : 《...》

강준 : 《정말 가슴아픕니다.》

태관 : 《강준반장!》

한편 이 영화에서 강태관과 지배인은 《직장장, 동갑이, 여보게, 강옥이애비》, 《지배인, 동갑이》 등 이야기분위기와 장소에 따라 여러가지로 서로 달리 찾고불리우며 맏아들인 강준이도 집안에서는 《형님, 맏이, 오빠, 조카, 아버지》 등으로, 공장에서는 《반장, 반장동지, 반장동무》 등 각이하게 불리운다.

말하자면 집안에서는 보통 친근하고 격식없는 언어수단들이, 직장과 같은 공적장소에서는 정중하고 공식적이며 보다 엄격한 언어수단들이 선택리용되는것이다.

교제자의 심리상태, 기분 같은것도 고정되어있지 않다.

상대적으로 기쁘고 즐거운 상태가 있는가 하면 이러저러한 일로 생각이 깊어지고 마음이 무거운 순간도 있기마련이다.

그러므로 말은 정황과 주어진 분위기에 맞아야 언제든지 가치가 있고 그 효과도 커지는 법이다.

일반적으로 생일을 맞는 사람을 대할 때 《축하한다》는 표현을 많이 쓴다.

그러나 《생일 예순(일흔)뽕을 축하합니다.》라는 인사말은 사실상 《늙는것을 축하》하는 것이나 같은 말이기때문에 인사받는 사람의 마음이 저도모르게 무거워지게 만든다. 그러므로 나이가 많은 웃사람들의 생일을 축하할 때에는 상대방의 나이를 꼭꼭 짊어서 나타내지 말고 그저 《생일을 축하합니다.》, 《건강하십시오.》, 《오래오래 장수하십시오.》라고 인사를 하는것이 훨씬 례의적이고 또 도덕적인것으로 된다.

언어교제에서 이런것을 바로잡지 않으면 사회적인 관습으로까지 굳어질수 있다.

인사말을 나눌 때 《늙다》, 《여위다》, 《못쓰게 되다》와 같은 말도 직선적으로 쓰면 상대방에게 실망을 주고 기분을 흐려놓게 되는것만큼 인사말을 고를 때 특별히 상대방의 심정과 기분상태, 이야기분위기 같은것을 잘 헤아려가면서 그에 맞는 표현을 정확히 골라쓰는데 관심하여야 한다.

격에 맞지 않는 인사말은 우습게 들리거나 지어 싱거운 소리로 되고만다.

레컨대 《안녕하십니까?》, 《수고하십니다.》와 같은 인사말은 일반적으로 두루 쓰일수 있으나 그렇다고 아무때, 아무에게나 다 쓸수 있는것이 아니다.

알고있는 사람이나 상가집에 찾아갔을 때 이런 인사말을 보내는것은 경우에 맞지 않을뿐아니라 오히려 실례로 될수 있다. 그리고 한창 식사중에 있는 사람이나 당장 잠자리에 들면 그만인 사람 그리고 자기보다 웃사람에게 인사를 할 때에도 판에 박은것처럼 언제나 《수고하십시오.》라고 인사를 한다면 그것은 아무런 의의가 없을뿐아니라 례의도덕에 어긋나는 몰상식한 언행으로 된다.

교제과정에 혹시 남에게 미안스럽거나 폐를 끼치는 일을 했을 때에는 《바쁜 길을 지체시켜 미안합니다.》, 《용서하세요.》, 《미안합니다.》, 《안됐습니다.》, 《제가 그만 너무 덤빈것 같습니다.》 등과 같이 량해를 구하는 말, 용서를 비는 말들을 골라 미안하고 송구스러운 마음을 표시해야 하며 웃사람의 앞을 지나야 할 일이 생겼을 경우나 이야기를 나누는 두사람가운데 한 사람을 꼭 만나야 할 일이 생겼을 때, 이야기도중에 자리를 떠야 할 일이 생겼을 때에는 《잠간 실례하겠습니다.》, 《잠간 말씀드릴 일이 생겨서...》, 《말씀도중에 미안합니다.》 등과 같은 표현을 골라 반드시 량해를 구해야 한다.

병문안을 하거나 슬픈 일을 당한 사람과의 교제에서는 상대를 위로하고 고무해주는 어휘표현들을 골라써야 한다.

주어진 이야기분위기나 상대의 기분상태, 감정 같은것을 의도적으로 돌리려고 할 때에는 성구나 유모아 그리고 과장된 표현들을 찾아쉴수도 있다.

교제장소에서는 대화공간거리에 따라 어휘선택을 달리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대화공간거리는 각이한데 례를 들어 부부사이 등 아주 가까운 거리는 0.45m, 일상 개인담화거리는 0.5~1.2m, 사무실에서의 담화거리는 1.2~2.1m정도이며 대화장소와 대화쌍방의 직무관계에 따라 3.6m까지 멀어질수도 있다.

[《언어생활과 례절》 과학백과사전출판사, 주체92(2003).]

아주 가까운 거리에서 이야기를 주고받을 때에는 부름말 같은것을 거의나 선택하지 않아도 되지만 공식적인 대화거리에서는 《동무들, 동지들, 여러분》과 같은 부름말 그리고 직

무, 학위학직 등을 나타내는 부름말들을 골라낼수 있다.

언어교제에서는 또한 교제자가 설정한 이야기의 중심이나 초점, 이야기전제 그리고 언어관습 같은것도 잘 고려하여 어휘를 선택하여야 한다.

교제의 중심이나 초점은 그 대부분이 말하고 글쓰는 사람의 교제목적이 강조되고 두드러지게 심어지는 부분, 교제의 기본요점이다.

말하는 사람은 교제과정에 자기가 나타내려는 골자부터 골라서 문장앞에 놓을수 있으며 특별히 강조하여 전하려는것은 해당한 부분의 어휘를 두번, 세번 련이어 반복하는것으로 나타낼수도 있다.

- 온다, 저기 아파트옆에...
- 떠나거라 어서, 집걱정은 아예 말어라.
- 일요일에 곱등어관에 놀러가자, 곱등어관에.

교제에 참가한 사람들사이에는 대화이전에 맺은 약속이나 청탁 같은것이 있을수 있다. 그러므로 교제에서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서 어휘를 선택하기도 한다.

- 아버지, 오늘 날씨가 참 좋아요.

이 문장의 표면적의미는 날씨에 대한 단순한 평가이다. 그러나 만약 날씨가 좋으면 유희장에 놀러가기로 미리 약속한 아버지와 딸사이에 오가는 말이라고 볼 때 이 문장의 뜻은 전혀 다르게 해석된다.

즉 문장속의 의미는 사전에 약속한대로 《유희장에 가자.》는것이다.

일상적인 사업과 생활에서 이미 주어진 절차나 질서, 경험, 굳어진 언어관습 같은것도 어휘선택의 전제로 되곤 한다.

- — 《비가 온다.》 ----- (알림문) ----- 《비》, 《오다》
- 《우산을 써라.》 > (시킴문) < 《우산》, 《쓰다》
- 《비옷을 입어라.》 > 《비옷》, 《입다》
- 《장화를 신어라.》 > 《장화》, 《신다》

언어교제과정에 보면 문화적으로, 규범적으로 말하는데 버릇된 사람들은 자기 언어에 대하여 특별히 생각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문화적인 어휘들을 골라쓰게 된다. 혹시 그렇게 되지 못한 경우가 생긴다 해도 말한 사람자신이 스스로 잘못된 표현에 대하여 수치감과 긴장감을 느끼면서 인차 문화적인 말로 고쳐쓴다.

그러나 부정적인 언어습관이 몸에 배인 사람은 때와 장소의 고려가 없이 아무때, 아무에게나 거칠고 상스러운 말, 사투리 같은것을 망탕 쓴다. 굳어진 부정적인언어습관은 그릇된 언어행동을 억제할 능력도 그만큼 약화시킨다. 이러한 개별적사람들의 부정적인 언어습관은 결코 개인언어생활의 비규범성에 관한 문제에만 그치지 않으며 온 사회에 건전하고 문화적인 언어생활기풍을 세우는데 저애를 주게 된다.

그러므로 어휘를 고르는데서 표준적인 어휘만을 쓰는데 버릇되어야 한다.

언어교제과정에 이루어지는 사상감정의 축적과 그에 따르는 어휘선택의 이 모든 심리언어학적요인들은 교제에 참가한 사람들자신의 정신도덕적준비상태와 언어구사능력 특히 그가 사는 사회제도의 성격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

더우기 입말을 통한 언어교제에서는 글말교제에서와 같이 사전준비시간이 미리 주어지지 않으며 이야기를 주고받는 짧은 순간에 모든것을 판단하고 분석, 평가하면서 필요한 언

어수단을 그때그때 대응시키고 골라써야 하는것만큼 말하는 사람자신의 능력에 크게 달려 있다.

말은 아무때, 아무데서나 함부로 하는것이 아니며 근거와 주장이 없이 되는대로 하는 것도 아니다.

우리는 언어교제과정에 진행되는 사상감정의 축적과 어휘선택에 대한 올바른 리해를 가지고 하나의 어휘표현을 고르고 한번의 교제를 해도 우리 인민의 우수한 민족심리와 정서를 그대로 나타낼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할것이다.

실마리어 언어교제, 사상감정, 어휘선택